

# 진흥회 활동

## 제3회 한국전자산업 세계화 국제포럼 개최



본회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전자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방향제시와 국제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9월 19일~21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본회회원사, 주한외국공단, 외국인 업체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전자 산업 세계화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에는 특히 국내주요기업은 물론 외국의 유수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모토로라·텍사스인스트루먼트·미쓰비시전기 등)과 투자계획수립에서 현지경영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직접듣는 한편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경영과 정부의역할, 국제경영기법에 대한 이해증진에 역점을 둬으로써 현재 진출중이거나 향후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 미-EU 통상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과 EU의 현지 고문변호사들을 초빙하여 통상세미나를 개최하였다.

WTO출범이후 세계무역이 표면적으로는 자유화되고 있지만, 선진 각국은 개도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덤핑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조사제품 안전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작년 한국 업체들에 대해 이전가격을 조사한 바 있으며, 1996. 9. 20에 GSP를 연장하면서 수혜자격을 강화하고 수혜한도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EU도 CE 마킹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수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통상환경을 점점하고 우리 전자업계의 수출진흥의 일환으로 본회는 현지 고문 변호

사인 Edwin Vermulst(EU)와 Micheal P.House (미국)를 초빙하여 각 지역의 반덤핑, 우회방지, GSP 등의 분야와 최근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EU의 CE마킹, 미국의 이전가격 조사 등을 중심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는 최신 통상정보를 업계에 널리 전파하여 수출시장에서의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전자산업 경쟁력 실태 및 강화대책 제시

---

본회는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전자산업(총수출의 35%)의 수출이 최근 둔화되어감에 따라 업계와 공동으로 3개월에 걸쳐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출 주종품이 가격경쟁력면에서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밀리고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 경쟁력면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전략적 개발 등을 촉구키로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 인상억제 등 행정규제의 완화와 함께 장기임대 공단건설 등 취약한 중소기업의 발전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우리 전자산업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비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 및 응용기기, 계측 및 제어기기, 전자재료 등의 기술집약산업이 산업구조상 취약부문에 지적되었으며 오디오, PC, 저항기 등 대부분의 수출 주종품목이 가경경쟁에서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뒤지고 VCR, FAX, 이동전화기 등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 경쟁력면에서 크게, 열세에 있으며 경쟁우위 내지 대등한 수준에 있는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모니터, CD-ROM 드라이브 등 극히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열위의 요인은 우리 기술의 수준에 비해 노동, 금융, 물류, 지가 등 제반 생산요소 비용이 높은 데다 '95년 5월 이후 급격한 일본의 엔화 절하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전자산업은 기술혁신이 급속한데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기술의 빈약, 선진국들의 기술이전도 기피하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나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품의 전략적 개발, 고도 정보 및 자동화 시스템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배가 및 원가절감, 품질의 일류화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 Global 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내의 형명사양 서비스 권련회의 개최

---

본회의 형명등록 센터에서는 지난 9월 12일 표제의 국내의 CRT형명등록사양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의한 결과, CRT와 관련된 TV, 모니터 업계의 자료 이용신청을 받아 모니터, TV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CRT기술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해외투자자 자기자금 조달 의무 비율제 폐지, 폐기물 예치금 요율 인상 억제 등과 함께 경쟁국인 대만 등의 경우와 같이 우수한 기술인력 공급확대, 장기 임대공단 조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물류지원 원활화 및 산업정보수집 제공체제 구축 등 산업기반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발전환경 조성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본회에서는 수출 유망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촉진, 전자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 ASIC개발 채용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 전시 및 광고,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등의 업계 공동의 경영합리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범전자업계 차원의 품질 일류화 운동을 전개해 비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경쟁력 강화 5대 중점 사업을 선정,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본회 WTDS센터에 등록완료된 것 이외에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형명 사양을 서비스함으로써 세트업계의 제품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선진국의 제품개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마련, CRT업계에게는 그동안 신제품 사양을 직접 세트업계에 전달하는 실무행위를 본센터가 대행토록 함으로써 CRT업계의 업무간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자료명 : 국내외(한국, 일본, 유럽중심) CRT형명사양서
- 제공방법 : 복사 또는 인쇄로 우편송부  
월1회를 원칙으로 함

## 가전업계 폐기를 예치금 인상안에 대한 건의

가전업계는 지난 9월 11일 본회에서 긴급 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의 폐기물예치금 대폭인상안이 폐가전품회수처리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유보해 줄 것과 예치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합리한 부과기준의 개선 및 업계의 폐가전품회수 처리사업의 가장 큰 애로인 환경인프라 구축사업에 미반환예치금을 시급히 지원해줄 것 등을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키로 하였다.

가전업계는 환경부가 예치금의 반환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폐기물예치금의 효율인상(30원→45원)과 대상품목 확대(냉장고 추가)를 통해 예치금 부담 규모를 62억원에서 214억원(245%)으로 대폭인상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전업계는 예치금의 반환율이 낮은 것은 폐기물의 예치금 부과대상을 폐기물(법적내구년한 적용)이 아닌 신제품(전년도 판매실적)에 대해 부과함으로써 발생폐기물 100%를 회수처리 해도 반환율이 18.7%에 불과한 상태라서 불합리한 부과기준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가전업계는 폐가전품의 회수처리체계를 갖추고 매년 2~3배씩 확대 처리해왔을 뿐 아니라 업계 공동으로 회수처리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572억원)를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서 예치금 효율의 대폭 인상은 폐가전품회수처리사업에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업계 공동 회수처리사업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가전업계의 경우 현행 효율을 유지한다 해도 냉장고가 대상품목으로 추가되면 업계부담액은 140%나 인상되는데 이에 효율까지 대폭 올려 245%나 인상코자 하는 것은 타산업제품과의 형평성(20% 수준),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겪고 있는 애로, 소비자부담(소비자 물가상승 목표율: 4.5%)능력 등 여러측면에서 무리한 인상이라고 보아 이를 유보해 줄 것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가전업계 폐가전품 회수처리실적

구 분	'93	'94	'95	'96 (계획)
회수처리대수 (천대)	59	148	489	740
전년대비증가율 (%)	-	251	330	151

## 고입변성기업계 친선체육대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4일 LG판교운동장에서 FBT업체 삼성전기 등 4개사 90명과 협력업체 극광전기 등 10개사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선을 도모하였다.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릴레이 등으로 우승 팀은 LG전자(주), 준우승은 삼성전기(주)에게 돌아왔다.



## 진공청소기 표준화 위원회 워크숍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10~11일 충주호리조트에서 LG전자, 삼성, 대우전자가 모인 가운데 청소기의 평가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 표준화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소비자 단체·시험검사기관에서 행하는 평가방법의 기준이 불분명함에 따라 국내의 규격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수립 청소기의 평가방법 등을 정부에 개정건의 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개발자금 지원유도, 수입청소기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진흥회 9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8.30	JEIDA 지적재산권 본회 방문	정보산업부 정보산업부
8.30	모니터 수출분과 위원회 개최	
9. 2	폐기물 예치금 인상 대응방안 회의	가 전 과
9. 4	C-TV 표준화 회의	가 전 과
9. 6	IEC-TC-39WG1, WG2 및 WTDS 국제회의 관련 사전회의	형명등록과
9. 9	아르헨티나 MWO 대책회의	가 전 과
9.10	DI-EU통상 세미나	국 제 부
9.11	형명등록 심의 위원회 개최	형명등록과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9.10~11	청소기 표준화 위원회 워크숍 개최	부 품 과
9.12	CRT 규격서비스를 위한 SET업체 회의	형명등록과
9.12	전자의료기기협의회 회의 개최	산업전자과
9.14	고성변성기 업계 체육대회	부 품 과
9.17	전자산업 Internet 홈페이지 구축	전 산 실
9.18	자본재 콘텐서 표준화 회의	부 품 부
9.19~21	전자산업 세계화 국제포럼	국 제 부
9.20	전해 콘텐서 표준화 회의	부 품 부
9.20	MWO 표준화 회의	가 전 과